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 논문

간접번역과 문화번역에 나타난 번역가의 가시성에 관한 제언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터키어 번역 사례 분석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AKCA SELEN

간접번역과 문화번역에 나타난 번역가의 가시성에 관한 제언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터키어 번역 사례 분석

지도교수: 강우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AKCA SELEN

AKCA SELEN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서영채 (인)

부위원장 김정하 (인)

위 원 강우성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터키어 번역을 직간접번역과 번역가의 비가시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공통점을 가진 주변언어들 사이의 간접 문학 번역의 장단점 및 (불)필요성을 살피고, 간접번역이 번역가의 가시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두 소설의 원고, 영어번역본 밑 터키어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간접번역이 두 언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문학 번역은 단순한 소통 이상을 목표로 하며, 한 문화권의 독자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독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학 번역을 통해서 한 나라의 문화 및 역사, 사회, 생활, 언어, 관습 등의 특징들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한테 알리고, 두 문화권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독자의 지각과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간접번역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존재와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학계와 번역 현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세계화로 인해 주변언어(peripherial)들 사이에서는 중앙언어(central)를 활용하는 번역이 증가하고 있다. 간접성의 개념은 번역 관련 종사자들에게 번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문학 전반에 걸쳐 계층을 가시화하고, 문학 번역 과정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등의 복잡한 방식으로 두 언어 사이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번역가가 번역의 자연스러움과 가독성을 우선순위로 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번역 자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번역가가 작가와 독자 중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갈지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가시성을 드러내거나 비가시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다.

김지영이 번역한 *Please Look After Mom* 은 한국근대문학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발판 역할을 한 작품이다. *Please Look After Mom* 은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며 유창한 번역을 목표로 하는 영국과 미국 문화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한국어 원본보다 영미권 독자에게 가까이 가는 방식을(자국화) 선택하여 '애초에 영어로 쓰여진 글'로 착각될 만큼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영어번역본은 지나친 자국화로 인해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영어번역을 통해 전달되지 못한 요소들이 2차 번역인 터키어로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분석하면서 터키어 번역가의 가시성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런 시도를 통해 한국과 터키 사이에서의 문학번역이 가야 할 길을 감히 조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터키어로 직간접번역된 두 소설을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 두 언어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번역의 현황을 살피고, 직간접번역 중 어떤 번역이 두 문화권의 관계를 더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어: 번역연구, 번역비평, 직번역, 간접번역, 터키어, 문화번역, 번역가의 비가시성, 신경숙, 양귀자

학번: 2015-23284

목 차

I. 서 론 1

1.1 문제의 제기 1

1.2 선행 연구 및 연구 동향 3

II. 이론적 배경 10

2.1 간접 문학 번역의 정의 및 특징 10

2.2 한국에서의 간접번역 연구 13

2.3 번역가의 비가시성이란 15

III. 텍스트 분석 23

3.1 표지, 제목 및 부제목 분석 26

3.2 텍스트 분석 40

IV. 결론 58

V. 참고문헌 61

VI. Abstract 66

I. 서론

1.1. 문제의 제기

문학과 세계 문학 연구의 글로벌 유통이 비교 문학에서 인기있는 주제가 된 시대에, 번역본은 종종 원본에서 번역 텍스트로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탓에 여전히 불완전한 작품으로 간주된다. 언어와 문화는 번역을 매우 복잡한 인지적 활동으로 만드는 두 가지 지배적인 요소이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도입될 때 번역은 그러한 도입에 앞서 필요한 작업이다. 적절한 번역은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필수적이다. 번역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문화 제품을 전달하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번역은 가치를 재창조하며, 문화 콘텐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모든 문화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적절한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인할 수 없으며, 연설이나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전달자에 의해 이해된다. 이해가 안 되면 의사소통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문학 번역에도 적용된다. 번역가는 원문에서 대상 텍스트로 수사적 기호를 전달하는 '언어의 메신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번역 방법을 사용하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의 메신저' 역할도 한다. 이 때 문화적 요소를 전달함으로써 해외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한국과 터키의 정치적, 상업적 관계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양국은 아직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1973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터키어과, 1989년 앙카라대학교에 국어국문학과가 설립되면서 대학 수

준의 학자들은 양국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몇 년간 양국의 관계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오르한 파묵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에도 터키 문학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터키 문학의 한국어 번역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1] 그러나 양국간의 문학 번역은 번역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항상 직접번역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제3의 언어를 매개로 번역된 작품들도 존재한다. 양국의 언어 및 문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국 간의 문학 번역이 직접번역인지 간접번역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많지 않다.

간접번역(번역된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문학 번역과 다른 유형의 번역에서 항상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번역 연구 분야의 연구 주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간접번역이 일반적으로 직접번역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간접번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점, 또는 부정적인 점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접번역이 과연 부적절한 선택인지, 적당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번역과정에서 번역가가 나타나야 되는지 아니면 원고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번역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다. 번역가의 (비)가시성이라고 정의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소설의 번역을 사례 연구로 분석하여 번역가의 (비)가시성 측

[1] 이난아,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와 번역 현황 고찰.” 아시아리뷰, vol. 3, no. 2, 2013, pp. 163.

면에서 직간접 문학번역의 차이점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별히 한국어에서 터키어로 직간접적으로 번역된 두 작품, 양귀자의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과 신경숙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서구 문화(영어)를 한국과 터키의 중재자로 활용한 효과를 살피고, 직간접 번역에 있어서 번역가의 비가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및 연구 동향

지금까지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소개 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2]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현황을 조사한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 이 중 터키어로 번역된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문학의 터키어 번역을 주제로 하는 연구로는 이난아의 "터키 문단과 언론에 나타난 한국" 논문이 대표적이다.[3] 이 논문에서 저자는 터키에서 한국문학의 역사와 현재 현황을 다루며, 특정 작품에 집중하지 않고 한국문학을 터키어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인력 부족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이난아가 말했듯이 한국문학이 가장 많이 번역되는 언어들의 경우에도 '전문 번역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 언어권으로 번역 활동을 꾸준히 할 번역가와[4] 학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터키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번역의 종류나 질보다는 작품에 대한

---

[2] 김정림, "목표 문화 중심의 번역 전략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3. 부산, p.4.

[3] 이난아, "터키 문단과 언론에 나타난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제안."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26, 2009, p. 135

[4] 이난아, "터키 문단과 언론에 나타난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제안."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26, 2009, p. 142.

연구나 작품에 담긴 문화적 가치가 한국과 터키의 문화교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다룬다. 한국문학의 번역에 대한 논문으로 괵셀튀르쾨쥬 (S. Göksel Türközü)의 "문화 번역의 맥락에서 한국어-터키어번역 연구(Kültürel Çeviri Bağlamında Korece-Türkçe Çeviri Çalışmaları)" 논문이 있다.[5] 이 논문에서도 일반적으로 문화 번역에 관한 필자의 생각과 2018년까지 터키어로 번역된 작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한 문학 작품의 번역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2012년 3월,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한국 작가 신경숙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문학상 중 하나인 Man Asian Literary Prize 문학상을 수상했다. 2008년 11월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는 국내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6개국에서 판매되고, 27개국에서 번역되었다.[6]

이 소설은 서울에 사는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상경했다가 지하철 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마중 나가는 일을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를 마중나가는 일을 서로에게 미루고,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는 결국 길을 잃는다. 실종된 엄마를 찾아다니며 자식들은 각자 엄마에 관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전통적인 소설 주제이지만, 소설이 굉장한 상업적 성공 거두고 독자

---

[5] Turkozu, Goksel. "KÜLTÜREL ÇEVİRİ BAĞLAMINDA KORECE-TÜRKÇE ÇEVİRİ KOREAN-TURKISH TRANSLATION IN THE CONTEXT OF CULTURAL TRANSLATION." Turnalar Dergisi 19 (2018): 3-12. Print.

[6] 이강선,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vol. 20, no. 2, 2019, p. 57.

들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많은 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했다.[7]

작품의 주제와 문학적 가치 외에도 이 소설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영어번역본인 *Please Look After Mom*의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번역되기 전에는 영어권에서 한국문학 번역이 크게 성공한 경우가 전무했다. *Please Look After Mom* 의 현지 출판사가 한국문학의 번역과 진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8]

문학 번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저작물의 미학적 효과와 감정을 다른 언어로 재창조하여 원 독자가 경험한 문학적 감동을 다른 언어의 독자에게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학 번역은 원저작을 읽는 독자와 번역된 작품을 읽는 독자가 유사한 범주 내에서 작품에 대한 경험과 감상을 공유할 때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만큼 연구의 대상이 된 한국현대소설 중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만큼 활발히 연구된 작품은 많지 않다. 이 소설은 문학적 맥락에서 작가의 작품 세계 연구와 작품에 대한 비평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가족, 어머니,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같은 주제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36개국에 출판권을 판매한 결과 번역 전략, 번역 이론, 번역 오류 및 성공 요인에 대한 많은 번역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연구될 것으로 예상된다.[9]

---

[7]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37, 2011, p. 307.

[8]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37, 2011, p. 309.

[9] 곽순례.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문화 어휘에 관한 고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이형진(2011)은 『엄마를 부탁해』 영어 서평에 나타난 번역가의 비가시성/불가시성을 지적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32편의 서평 가운데 18편에서는 번역에 대한 논의는 커녕 번역가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특징이 번역에 있어서 '자연스러움' 만을 추구하는 영미권 서평가들의 출발어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번역 텍스트만 읽고 평가하는 영미권 서평 문화의 한계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10]

김영신(2012) 또한 번역 서평 분석으로 번역가의 비가시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역시 유사하게 베누티의 이국화/자국화 개념을 바탕으로 번역가의 비가시성 논의를 자국화 개념의 폴리시스템 이론과 연결하여 "문학 전통이 강한 시스템 내에서 작업하는 번역가는 자국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학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문화에서는 이국화 전략과 저항적인 번역이 우세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11] 결과적으로 이형진과 유사한 결론을 내려 『엄마를 부탁해』 영어번역 서평 대부분에 작품이 번역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드러났다 하더라도 '간단하고 피상적' 이었다고 주장한다.

윤선견(2013)도 김지영의 번역을 성공적인 자국화로 평가하면서도 자국화를 활용한 모든 번역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영미권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타문화와 타언어' 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특징을 없애고 영미 문화에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vol. 21, no. 3, 2017, p. 4.

[10] 윤선경 "문학번역 연구 현황과 과제: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vol. 57, no. 3, 2013, p. 128

[11] 김영신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가의 비가시성 연구 – '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vol. 14, no. 2, 2012, p. 68.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자국화 번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학작품의 근본적인 번역 문제점을 다루는 정호정(2012)의 연구는 자국화 번역전략의 틀 안에서 김지영의 번역본을 분석한다.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그는 자국화가 출발 텍스트 안에 있는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독자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접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신경숙 소설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적인 특징들이 김지영의 번역본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영미권 독자들이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12]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Please Look After Mom*을 중심으로 '자국화' 와 '번역가의 비가시성' 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보이는데 이것은 김지영의 번역이 가독성을 중시하는 영미권에서 성공적인 사례였기 때문이다.

박철우(2014)도 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작품에 나타난 '자국화' 전략을 검토한다. 그의 연구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를 위해 사용해야하는 번역 전략을 파악하고자 *Please Look After Mom*의 '성공 요인들' 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번역가는 '변형-첨가-누락' 의 과정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박철우에 따르면 김지영의 번역은 '시제 변형, 단락과 단어 변형, 도시명 첨가, 사투리 누락의 4가지 패턴' 과 같은 자국화 전략을 사용하면서 '원작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번역본의 가독성을 향상시킨 성공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13]

조숙희(2015)는 위 연구들과 다르게 *Please Look After Mom*의 번역에서 베

---

[12] 정호정,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vol. 14, no. 2, 2012, p. 273.

[13] 박철우 (2014)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自國化, domesticating)'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13:2, 181-197

누티가 말하는 ‘이국화’ 전략이 사용된 부분들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김지영은 영미권 독자들에게 낯선 한국의 문화 요소들을 전달하기도 한다. 조숙희가 주장한 이국화로 번역된 문학 특정어 중에는 번역가가 음차로 표현 한 ‘리(ri)’, ‘평(pyoung)’ 등과 원서에는 ‘술’이라 되어 있지만 *makgoli* 등이 있다.[14]

이 외에도 프랑스어 번역을 분석하는 김경희의(2015) 작품의 독특한 구조, 화법, 오역 연구와 작품 번역에 있어서 한국어- 중국어 번역의 문제를 다루는 홍경아(2012)의 연구가 있다.[15] 터키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거쳐 간접번역이 이루어진 몇몇 사례가 있으며, 그 중 연구된 것은 아랍어, 힌디어 그리고 태국어뿐이다. 김정아와 임은선(2020)은 아랍어 번역본 텍스트 사례 분석을 한다. 또한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문화 어휘를 고찰한 곽순례(2017)는 중개자의 개입의 장단점들을 살펴본다. 이지현(2019)은 영어번역을 중개자로 한 힌디어 번역본에 나타난 번역 오류를 검토하고 중역으로 인해 생긴 오류들을 없애기 위해 한국어-힌디어 직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yung-Eun Park . Keun-Hye Shin . Ki-Sun Kim(2015)은 문화 어휘의 관점에서 간접번역의 한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터키어 번역과 관련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아직 없다.

신경숙의 작품이 문학과 번역의 관점에서 활발히 연구된 것과 달리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작품은 1986년 3월부터 1987년 8월까지 총 11편이 《한국문학》과 《문학사상》 등 7개의 잡지에 발표되

---

[14] 조숙희 “베누티의 이국화로 본 김지영의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 : 문화 특정어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vol. 8, no. 3, 2015, pp. 253-271.

[15] 곽순례.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문화 어휘에 관한 고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vol. 21, no. 3, 2017, pp. 4-5.

고, 1987년 11월 문학과 지성사에 의해 모두 묶여서 출판된 양귀자의 연작 소설[16] 『원미동 사람들』은 국내/외에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만큼 학자들의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원미동 사람들』 에 대한 연구로 김지혜(2010)의 결혼 이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 연구와 김경애와 이형진(2014)의 한국문학이론과 현대문학 연구들이 있다. 이양숙(2015)은 작품에 나타난 도시의 일상과 도시공동체의 의미를 다루고, 이주연(2017)은 한국어 문학 교육 방안 연구로 『원미동 사람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난(2020)은 작품에서 나타난 1980년대 서울 위성도시의 장소성과 일상성의 문제를 다룬다.

작품의 영어번역본이 2019년에 출판되었으나, 번역본은 널리 유통되지 못했으며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단행본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작품은 영어 이외에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그리고 터키어까지 총 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본고는 한국어에서 터키어로 직번역된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과 영어번역을 중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번역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가의 비가시성의 관점해서 비교 분석하여 직간접번역이 번역가의 비가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터키 문학 번역가 또는 연구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더 많은 연구의 선구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 https://ko.wikipedia.org/wiki/원미동 사람들

II. 이론적 배경

2.1 간접 문학 번역의 정의와 특징

간접번역은(ITr)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언어 A를 언어 B를 통해 언어 C로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방법은 원어민 C 언어 번역가가 A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를 C 언어로 번역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번역 프로세스에서 언어 A의 텍스트는 언어 B의 원본 텍스트가(ST) 되는 반면, 언어 B의 텍스트는 언어 A의 대상 텍스트와(TT) 언어 C의 새 원본 텍스트가 된다.[17] 그러나 보다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Toury는 간접번역을 "궁극적인 기점(起點) 언어(SL)의 언어와 다른 언어에서 번역(translating from languages other than the ultimate SLs)"으로 정의한다.[18] Toury의 정의는 간접번역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 또는 중개자(mediating agent)가 하나 이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ITr의 현상을 묘사, 이해 및 설명하기 위해서 Rosa, Pięta & Maia는 (2017), 아래와 같이 간접번역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a) 프로세스에 관련된 중재 텍스트의 수와 유형(하나 이상);

---

[17] Lee, Hyung-Jin. "Survival through Indirect Translation: Pablo Neruda's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into Korean." Journal of Language Translation, vol. 9, no. 2, 2008, p. 73

[18] Toury, Gideon.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Electronic Resource] / Gideon Toury. J. Benjamins Pub., 1995., p.58

(b) 개입 언어의 수(하나 이상) 및 다음 중 하나의 선택 – 하나의 매개 언어만 사용 대 하나 이상의 매개 언어 및/또는 궁극적인 SL, 하나 이상의 매개 언어 사용, 그리고 궁극적인 TL;

(c) 간접성의 정도(second-hand, third-hand...);

(d) 간접성의 표시(숨김 또는 공개); 그리고

(e) 간접성 상태(연구 목적으로 입증되거나 추정될 수 있음).[19]

간접번역의 중개자는 인간 또는 텍스트일 수 있다. 다양한 에이전트가 번역 프로세스에서 상호 작용할 때 이를 인간 중재라고 하며, 텍스트 차원은 번역의 과정에서 다른 텍스트의 중재를 포함하는 것을 일컫는다. 텍스트 간접성은 다양한 소스 텍스트 판, 번역, 재판, 재번역, 합성 버전, 미발표 초안 등의 사용을 포함하여 다양

---

[19] (a) the number and type of mediating texts involved in the process (one or more);

(b) the number of intervening languages (one or more) and their choice . involving the use of only one mediating language vs. the use of more than one mediating language and/or the ultimate SL, one or more mediating language(s), and the ultimate TL;

(c) the degree of indirectness (second-hand, third-hand…);

(d) the presentation of indirectness (either hidden or open); and

(e) the status of indirectness (which for research purposes can be either proven or only presumed).

Rosa, Alexandra Assis, et al.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Regarding Indirect Translation: An Overview." Translation Studies, vol. 10, no. 2, 2017, pp. 119.

한 형태와 정도를 가질 수 있다.[20]

간접번역은 성경과 함께 시작되어 태고적부터 존재해 왔지만 '2차적인(second-hand)/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출판된 작품에서 시행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간접번역이 직번역만큼 정확하지 않고 원본에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Alexandra Assis Rosa, Hanna Pięta and Rita Bueno Maia가 간접번역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간접번역은 틀림없이 궁극적인 원본까지의 거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종종 숨겨지거나 위장된다" 고 주장 한 바 있다.[21] TT(Target Text)에 원본이 MT(Mediating Text)가 되기 때문에 번역가는 ST(Source Text)에 직접 접할 수 없게 된다. ST에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원본이 만들어진 문화 및 문학과 거리가 다소 멀다는 뜻이다. 세계화와 함께 국제 권력 관계망에서 영어와 같이 권력을 가진 언어를 매개로한 간접번역이 자주 실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접번역은 하나의 주변언어에서 다른 주변언어로 중앙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간접번역이 시행되는 이유로는 거리가 먼 언어들 간의 직번역이 가능한 인력 부족 및 비교적 높은 번역 비용을 지목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번역이 항상 직접번역 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 없다. Radó의 따르면, ITr의 성공 또는 실패는 번역가의 재능과 그가 사용하는 중간 번역의 품질에 달려

---

[20] Marin-Lacarta, Maialen. "Indirectness in Literary Translation: Methodological Possibilities." Translation Studies, vol. 10, no. 2, 2017, p. 134.

[21] Rosa, Alexandra Assis, et al.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Regarding Indirect Translation: An Overview." Translation Studies, vol. 10, no. 2, 2017, pp. 113.

있다. 매개 텍스트의 품질이 좋고 번역가의 실력이 뛰어나다면, 간접번역이라도 직접번역에 못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직접번역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은 원본에서 직접 만든 평범한 번역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22] Pięta는 더 나아가 ITr이 없었다면 세계의 고전들이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될 수 없었을 것이며, 각국에 더 늦은 시기에 보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3]

그러나 간접번역에 대한 여러 가정 중 일부만이 연구에 의해 입증되고 뒷받침되었다. 간접번역은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분야로서 성장과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번역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언어 능력 및 선행 연구를 활용한 연구로 간접번역 분야에 작은 기여라도 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한다.

2.2. 한국에서의 간접 문학 번역 연구

한국은 물론 해외 문헌에서의 간접번역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간접번역의 성격과 특성은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에서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24] 관심

---

[22] Radó, György. 1975. "Indirect Translation." Babel 21 (2): p.51.

[23] Roig, Diana Sanz, and Bozena Zaboklicka. "What Do (We Think) We Know about Indirectness in Literary Translation? A Tentative Review of the State-of-the-Art and Possible Research Avenues." Traducci□ Indirecta En La Literatura Catalana: V Simposi Sobre traducci□ I recepci□ En La Literatura Catalana contempor□nia, Punctum, Lleida, 2014, p. 24

[24] Lee, Hyung-Jin. "Survival through Indirect Translation: Pablo Neruda's Veinte

을 못 받았다 해도 한국에서 간접번역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승재가 "불경간접번역과 교육적 함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 관련 서적을 중국어를 통해 한국어로 간접번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저자는 번역 교육에서 간접번역보다 직접번역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또한 이현진의 "Survival through Indirect Translation: Pablo Neruda's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on desesperada* into Korean (간접번역을 통한 생존: 파블로 네루다의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on desesperada* 한국어 번역)"이라는 논문이 있지만, 이 논문도 외국 문학의 한국어 간접번역을 주제로 하고 있다.[26]

2015년에 Kyung-Eun Park . Keun-Hye Shin . Ki-Sun Kim이 영어를 걸쳐 번역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태국어 번역본을 간접번역의 한계와 문화 어휘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위 논문은 지리 및 문화적으로 가까운 두 언어 사이에 언어 · 문화 · 지리적인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into Korean." Journal of Language Translation, vol. 9, no. 2, 2008, p. 73.

[25] SeungJae Lee. "불경간접번역과 교육적 함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vol. 17, no. 3, 2019, pp. 93-113.

[26] Lee, Hyung-Jin. "Survival through Indirect Translation: Pablo Neruda's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into Korean." Journal of Language Translation, vol. 9, no. 2, 2008, pp. 71-93

타자(영어)의 개입과 문화 어휘(cultreme)의 오역으로 인해 목표 언어권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 하였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지리적으로는 아니어도 언어 및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터키 사이에서도 서양의 언어와 문화가 개입되지 않는 번역이 더 성공적일 것이라 믿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3 번역가의 비가시성이란

번역가의 가시성에 앞서 이븐 조하(Even-Zohar)의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븐 조하는 번역문이 사회, 문학, 문화 그리고 역사의 일부이며, 번역물을 개별로 연구하지 않고 문학이라는 시스템 틀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폴리시스템 이론은 문화적 맥락에서 번역 문헌을 평가하고 대상 시스템에서 그 가치를 평가한다. 폴리시스템(Polysystem)은 시에서 아동문학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에 관계없이 모든 문학장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각 유형의 텍스트는 별도의 문자열로 간주된다. 이 문자열은 항상 서로 접촉한다. 스트링의 위치는 문제의 이론에서 결정된다. 텍스트 장르가 그들이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1차적인지 2차적인지, 다른 장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르의 핵심 또는 주변부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시스템에서 번역은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다. 중심 문학 장르는 다른 장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중심 위치가 있는 번역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장르는 다른

장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다. 이 위치의 번역은 "허용"된다.[27]

이븐 조하에 따르면 번역된 텍스트는 "1차" 및 "2차" 위치에서 만들어진다. 단, 번역이 일차적인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폴리시스템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문학이 젊었을 때)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며, "환경적"이거나 "약한" 또는 둘 다이며, 문학의 전환점, 우울증, 문학적 격차가 있어야 한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번역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다기능 번역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기능 번역의 역할은 그 이상이다. 번역된 텍스트의 주요 목적은 의

---

[27] "Çoğuldizge kuramı, çeviri yazınını kültürel bağlamda inceleyerek erek dizgedeki önemini saptamaktadır. Çoğuldizge, şiirden çocuk yazını türlerine kadar edebiyatın bütün türlerini önemli ya da önemsiz olmasına bakmaksızın kapsayan bir terimdir. Her metin türü bir dizge olarak kabul edilir. Bu dizgeler birbirleri ile sürekli bir etkileşim içindedir. Söz konusu kuramda dizgelerin konumu belirlenir. Metin türlerinin bulundukları sistem içinde birincil veya ikincil konumda mı olduğu, diğer türleri ne kadar etkilediği veya diğer türlerden ne kadar etkilendiği incelenerek bu türlerin merkez veya çevresi konumunda mı oldukları belirlenir. Çeviri ise bu sistem içinde sabit bir konumda değildir. Merkez konumda yer alan bir edebiyat türü, diğer türler üzerinde etkisi en baskın olandır. Merkez konumdaki bir çeviri ise "yeterli" olarak kabul edilir. Çevresel konumda yer alan bir tür ise diğer türlerden daha çok etkilenmektedir. Bu konumdaki bir çeviri "kabul edilebilir" dir."

Tanrıkulu, Lokman. "The Investigation of Sabahattin Ali's 'The Devil Within Us' Novel According to Polysystem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al Sciences Education (2018): n. pag. Print. pp.29-30

사소통이지만 Venuti의 주장에서처럼 번역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아무도 번역의 주된 목적과 기능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오늘날에 단순한 의사소통 행위라는 생각과 거리가 멀다."[28] 과정을 필요로 하는 번역에서 번역가는 언어적, 맥락적, 문화적 의사소통을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채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번역가는 자신이 완성한 번역의 종류, 목적,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번역에서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번역가는 기능, 목적, 번역 유형에 관계없이 자신의 정체성 또는 번역가의 가시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번역가는 보이지 않고 종종 사라진다.

번역의 유창함, 명확성 및 가독성을 중시하는 출판사나 기업에게는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번역가의 가시성보다 작품이 잘 팔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번역된 저작물은 원저작물로 간주되고 번역된 저작물을 소유한 번역가는 보이지 않게 된다. 번역은 번역이며 번역가는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중요성, 즉 자신의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결과물이 원작이 아닌 번역물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번역의 유창함과 명료성을 높이면 번역과 번역가가 보이지 않게 된다. Venuti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번역가는 유창한 번역 체제 하에서 자신의 작업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또한 환상으로서의 위치를 덮는 투명도의 환상을 생성한다. 번역된 텍스트는 "자연스러운",

[28] Venuti, Lawrence.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Theory and Practice / Lawrence Venuti., 2013, p.119

즉 번역되지 않은 텍스트로 나타난다. "[29]

Venuti에 따르면 번역가의 목표는 문화적 타자(the other)를 가능한 한 원주민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30] 번역은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대상 문화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진행된다. 번역가는 "이국화" 및 "자국화" 개념에 기반한 전술을 사용하여 저자 또는 독자에게 더 가까운, 즉 더 가시적이거나 덜 가시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국화"란 대상 문화를 무시하고 독자에게 저자가 어떤 면에서 타자임을 알려줌으로써 번역을 더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원본 문화를 전면에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국화"는 대상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 독자의 문화를 버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1] 그는 '이국화'와 '자국화'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A domesticating method, an ethnocentric reduction of the foreign text to target language cultural values, bringing the author back home, and a foreignizing method, an ethnodeviant pressure on those values to register the linguistic and cultural

---

[29] "... the translator works to make his or her work "invisible," producing the illusory effect of transparency that simultaneously masks its status as an illusion: the translated text seems "natural," i.e., not translated."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 A History of Translation / Lawrence Venuti., 1995, p.5.

[30]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 Edited by Lawrence Venuti., 2004, p.18.

[31]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 Edited by Lawrence Venuti., 2000. p.468

difference of the foreign text, sending the reader abroad.

자국화 전략이, 외국어 텍스트를 민족 중심적으로 축소하여 언어 문화적 가치를 목표로 삼아 저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이국화 전략은 외국 텍스트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등록하기 위해 그러한 가치에 대한 민족주의적 압력으로 독자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32]

이국화와 자국화의 분리는 독일의 신학자이며 번역자인 Friedrich Schleiermacher에서 시작되었다.

The translator can either leave the writer in peace as much as possible and bring the reader to him, or he can leave the reader in peace as much as possible and bring the writer to him.

번역가는 가능한 한 작가를 평화롭게 두고 독자를 그에게 데려오거나 가능한 한 독자를 평화롭게 두고 작가를 그에게 데려올 수 있다.[33]

대상과 출처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번역가는 이전에 언급한 번역 방법을(이국화/자국화) 적용할 수 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이동함으로써 번역가는 중개자의

---

[32]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Print. p.20.

[33] Hatim, B.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 Basil Hatim. Second ed., 2014. p.50

기능을 채택한다.[34]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러한 전략을 결정하는 데에는 번역 목적, 스타일, 내용, 이념 및 텍스트 유형과 같은 많은 요소가 존재하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는 '이국(異國)의 것(the foreigner)'과의 소통의 형태로 시험을 겪는다. Venuti에 따르면 타겟 독자 번역 텍스트가 '이국의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프랑스 번역 학자 앙투안 베르만(Antoine Berman)은 '이국화'와 '자국화'의 번역 전술을 참고해 '이국의 것을 시험한다'는 개념으로 번역을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번역을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는 대상 텍스트가 번역 텍스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텍스트의 이질성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rman은 번역이 두 가지 다른 수준에서 테스트 된다고 언급한다. 첫 번째는 텍스트가 이국의 것을 수용하기 위해 번역될 언어에 대한 저항과 테스트이며, 두 번째는 번역된 언어로 번역될 텍스트를 생존하는 테스트인 것이다.[35]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존재 형태, 즉 번역될 텍스트의 저항과 번역될 언어의 저항과 관련된다.

벨기에 번역 학자 Theo Hermans는 '번역가의 목소리'라는 개념을 통해 번역가의 비가시성을 검토한다. Hermans에 따르면 번역 내러티브 담론은 항상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포함한다. 번역가의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거나 하위 텍스트에 포

---

[34]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 Edited by Lawrence Venuti., 2000. p.468

[35] Araboglu, Asli. “Our way of (not) seeing the adventure of the translator during translation criticism”. Idil Journal of Art and Language 8.57 (2019): n. pag. Web, p.654.

함된 두 번째 목소리로 나타난다.[36] Hermans가 지적한 것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면 더욱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다. 이 목소리가 서브 텍스트와 같이 명백해지는 상황에서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의 이데올로기, 투명함과 무작위성의 환상, 한 목소리의 착각은 모두 다른 목소리의 존재를 간과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환상은 기존의 텍스트 계층 구조의 결과이자 대상 문화에 대한 기대치의 산물이다. Hermans에 따르면 번역 내러티브에서 번역가의 암시적 또는 명시적 담론적 존재가 번역가의 목소리라는 것이다.[37] 이 정보를 기반으로 번역가는 자신이 채택한 전략을 사용하여 두 문화 사이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다. 또한 번역 이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축에서 형성된 소스 포커스 또는 대상 포커스 뷰에 따라 번역가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이 달라진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극의 결과로 선호하는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작가와 번역가의 목소리 모두가 담길 수 있다.

번역가의 가시성은 대상 독자의 관심을 우선시하여 의사소통을 확립하거나 유창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번역에서 선호될 수 있다. 반면에 비가시성이 독자가 이국의 것을 이국의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번역가의 목소리가 대상 문화의 기대를 가진 유일한 목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작가와 번역가의 목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비평에서 번역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원문과 대상문 사이의

---

[36] Araboglu, Asli. “Our way of (not) seeing the adventure of the translator during translation criticism”. Idil Journal of Art and Language 8.57 (2019): n. pag. Web. p. 655.

[37] Araboglu, Asli. “Our way of (not) seeing the adventure of the translator during translation criticism”. Idil Journal of Art and Language 8.57 (2019): n. pag. Web.

소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깨는 것은 양질의 번역을 생산한다는 일반적인 목표를 가진 비평에서는 단순하고 통계적인 비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베누티에 따르면 번역가의 비가시성은 영미권 문화에서 만연해온 개인주의적인 저자(autorship)의 개념으로 결정된다. 즉 작품의 원본을 쓰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 쓸 수 있다. 저자가 쓰는 것만이 원본이 될 수 있으며, 번역본은 2차적인 '위조된 복사본'일 뿐이다. 번역이 원본이 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번역가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번역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베누티가 덧붙인다.

번역가가 비가시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를 서평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문학 작품의 서평에서 번역에 대한 언급은 간략하게 번역의 '투명도'나 유창성 정도에서 끝난다. 대부분의 경우 번역가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간혹 작품이 번역물이라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출판된 번역 작품 표지에 번역가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거나 서평가가 본인이 검토하고 있는 작품이 번역임을 모를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영미권에서 번역가는 비가시적인 존재이다. 베누티는 더 나아가 법적인 면에서도 번역가가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38]

[38]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Print.

III. 텍스트 분석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번역본인 *Please Look After Mom*은 가독성과 타겟층의 적응성이 좋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번역가가 출판사와 독자의 반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국화"를 선택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며 번역가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39] 번역의 상업적인 목표 의미에서 보면 큰 성과를 얻고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번역학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자국화만을 고집했으며, 독특한 문화 요소나 한국의 특색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매우 다른 한국과 영미권 사이에서 문학번역을 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언어학 및 번역학 연구자인 Jieun Kiaer는 여러 면에서 매우 다른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번역하는 일이 쉽지 않은 탓에 번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번역가의 비가시성 관점에서 번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Dealing with invisibility is a challenge that K-E translators face

[39] "사실, 대다수 미국인은 우연하게나마 한국 소설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미국인들은 번역서 읽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전체 출간도서 가운데 문학 번역서는1%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국 작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 작가의 출간 사례가 얼마나 적은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어의 구조와 한국의 문학 전통 그리고 문화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너무 이질적이고 낯설다. 나는 독서 경험을 방해할 만한 장벽을 허물어서 새로운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신 재인용 72)

at every moment of the translation process, from a micro-level to a macro-level, because the two languages are linguistically quite different. Common nouns in English are presented with articles, and specifying numbers or gender for pronouns is compulsory; in Korean, articles don’t exist, and expressing number and gender is not conventional. It isn’t only at the word level; the two languages also differ in crucial ways at structural and pragmatic levels.

두 언어는 언어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영 번역가가 번역 프로세스의 모든 순간에 직면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영어의 일반 명사는 관사와 함께 제시되며, 대명사에 대한 숫자 또는 성별 지정은 필수이다.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고, 숫자와 성별을 표현하는 것이 관습적이지 않다. 단어 수준에서만이 아니다; 두 언어는 또한 구조적 및 실용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다룬다.[40]

또한 이광호(2011)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번역하는 일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40] Kiaer, Jieun, et al. Translation and Literature in East Asia : Between Visibility and Invisibility, Taylor & Francis Group, 2019. ProQuest Ebook Central, https://ebookcentral.proquest.com/lib/snulibraryebooks/detail.action?docID=5770446.

> 영어와 한국어는 단어와 관용어구들의 구조와 의미는 물론 통사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로 인해 언어 표현 양식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아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영어로 잘 번역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번역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 모든 차원에서 SL과 TL의 등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이고 난해한 작업이다.[41]

소수의 언어에서 다수의 언어로 번역하는 한-영 번역과 소수의 언어에서 소수의 언어로 번역하는 한-터 번역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 보다 후자가 더 쉽거나, 더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소수의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터키어 사이에서의 문학 번역에서 다수의 언어/텍스트를 사용하는 번역에서는 중개자인 다수의 언어(영어)가 번역 과정과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제2장에서 언급된 Rosa, Pięta & Maia (2017)의 ITr 구별 방법에 따르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터키어번역본 *Lütfen Anneme İyi Bak*은 한 가지 중개언어 및 소스 텍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2차 번역이며, 이 사실이 숨겨져 있지 않다.[42]

---

[41] 이광호 "표현 양식 차이로 인한 한/영 번역의 문제." 통번역교육연구, vol. 9, no. 1, 2011, p. 145.

[42]책의 전문(前文)에서 '소설을 영어에서 번역한: Belgin Selen Haktanır Us'라는 문장이

본고는 *Please Look After Mom*을 중개 텍스트로 하는 한-터 번역에 있어, 영어번역 및 터키어번역 번역가의[43] 가시성 그리고 동양의 공통 요소들의 (비)번역으로 인한 비가시성이 터키어 텍스트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개자를 쓰지 않고 한국어에서 터키어로 직번역된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에서 잘 드러나는 한국와 터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간접 문학 번역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후에 한국-터키 문학 사이에서 이루어질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파라텍스트적 요소 분석과 텍스트 분석으로 나누어 『엄마를 부탁해』 한국어, 영어, 터키어 텍스트 분석과 유사한 관점에서 『원미동 사람들』 한국어와 터키어 텍스트 분석을 비교할 것이다.

3.1 표지, 제목 및 부제목 분석

소셜 코드는 일반적으로 그림과 텍스트로 구성된 표지의 제작과 읽기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독자를 유치(誘致)하고 대상 독자 사이에서 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지 제작에 자체 인식을 사용한다.[44] 독자와 저자가 만

서술되어 있다.

[43]터키어 번역가: Belgin Haktanır Us은 197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터키 Hacettepe 대학교에서 영문학 및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Atılım 대학교에서 영문학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외교 기관의 연구직, 대학 수준의 영어 교육 및 음악 스튜디오 관리 등의 경력을 쌓은 후 영어-터키어번역 분야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https://www.koridoryayincilik.com.tr/kategori/cevirmenler#labels=162-2

[44] 이강선,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나는 곳인 표지는 읽을 책을 선택할 때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지의 모든 요소들은 오로지 독자 수용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번역본도 마찬가지이며, 각국의 문학 시스템과 독자 수용에 따라 번역본의 표지가 다르게 결정된다. 원본의 독자와 번역본의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표지 또한 번역본 독자의 수용에 맞춰서 제작되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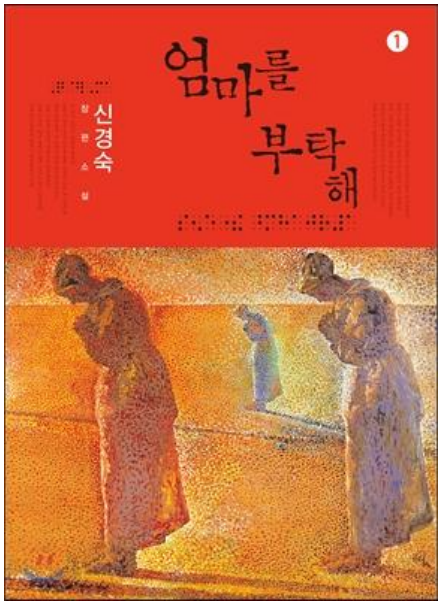
번역본의 표지가 제작되는 과정에 원본 작가의 의도, 원본 작품이 출시된 나라의 위상, 대상 국가와 원본 국가의 관계, 사업적 목표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간접번역 작품의 경우 위 요인들 외에 중개자의 역할도 포함된다. 중개자의 역할은 원본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엄마를 부탁해』원본, 영역본, 터키어번역본 표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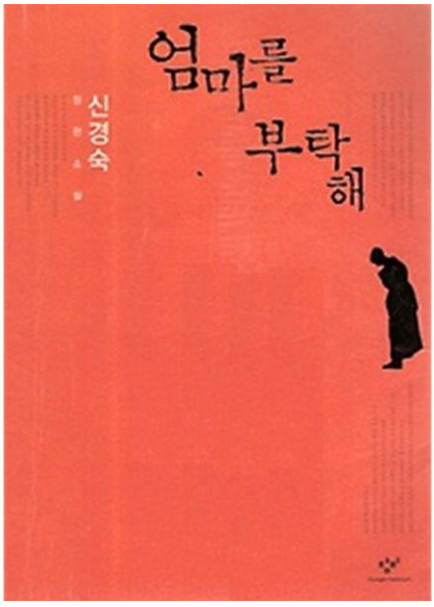
표지의 많은 항목 중에서도 그림/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문자보다 먼저 눈에 띄고, 책과 독자의 첫인상을 결정지으며, 대상 문화 및 문학 시스템 속에서 작품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

vol. 20, no. 2, 2019, p. 59.

<그림 1> 원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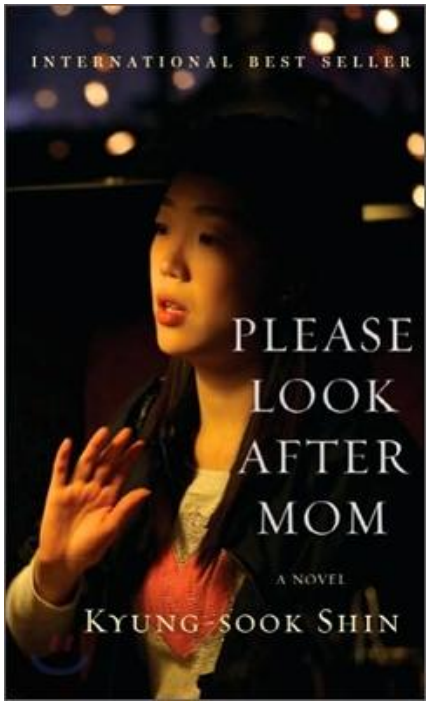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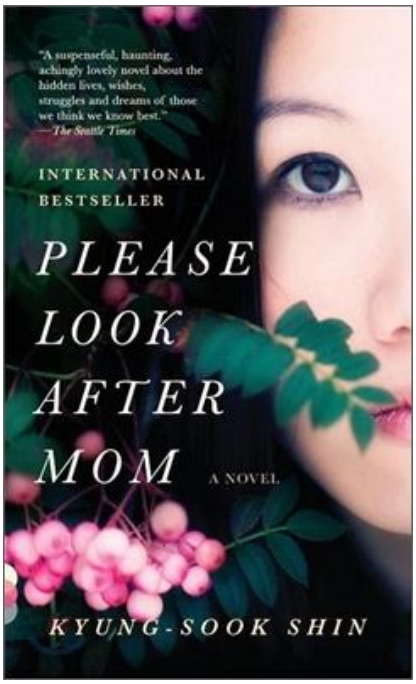
<그림 1>은 『엄마를 부탁해』 원본의 표지이다. 책의 주인공이 시골에 사는 성인 자녀를 둔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표지의 여성은 어머니 '박소녀'로 추측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진 속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겉표지에 같은 인물의 형상을 다섯 번 배치하므로써 소설 속 다섯 명의 화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45]

---

[45] "원본 표지는 전체가 붉은 색이고 띠지에 그림이 있어 여백을 살린다. 밀레 (Millet)의 '만종'에서 일부를 따와 변형시킨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그림 '새벽, 한낮, 해넘이, 해질녘' 전체가 띠지로, 시간대별로 기도하는 수건 쓴여인들이 나열되어 있다. 항상 땀에 전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일하고 가족만을 위하고 생각하는 엄마의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다(박상주 2009: 13). 주인공이 여성, 농촌 아낙네라는 점에서 이 여인이 어머니라고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이 표지는 자세에서 우러나오는 느낌, 즉 '기도'에 중점을 둔다. 간절한 소원을 연상시키는 이 표지는 띠지 앞뒤로 동일한 인물 다섯 명을 반복 배치함으로써 다섯 명의 화자를 연상시키며 '엄마를 부탁해'라는 제목과 연결된다."

<그림 2> 영어번역본 표지





<그림 2> 에 있는 표지들은 다른 두 출판사에서 출판된 영어번역본의 표지들이다. 원본과 달리 표지 속의 인물은 젊은 동양인 여성이다. 이 표지에서 묘사된 인물은 주인공의 큰 딸 지현이라고 짐작되는데 전체적으로 소설의 내용과 큰 관련이 없다.

이강선(2019)이 지적했듯이 영어 본역본 표지는 책이 '동양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낯섦의 매혹을 들이댐'으로써 원작의 의도와 달리 오리엔탈리즘의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표지 스타일은 동양의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서구의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영어번역본

이강선,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vol. 20, no. 2, 2019, p. 64.

과 유사하게 서유럽의 여러 나라 번역본의 표지는 젊은 동양인 여성의 얼굴 전체나 절반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로 오리엔탈리즘을 들 수 있다. 동양이 그들의 시각과 편견으로 서양/서양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구 역시 그들의 시각으로 동양/동양인을 보는 경향이 있다.[46]

<그림 3> 터키어번역본 표지

[46] "영어본의 특징은 서유럽의 여러 나라 표지의 특징과 일치한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핀란드 등의 나라들은 표지에 동양여인의 얼굴을 넣었다. 이 표지들은 젊은 여인의 얼굴 전체 혹은 절반을 강조, 집중하도록 만든다. 이 인물은 비중이 가장 큰 인물인 큰 딸 지현임이 분명하지만 어머니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다."

이강선,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vol. 20, no. 2, 2019, p. 68

터키어 표지의 경우 봄/가을로 추측되는 배경에 벤치에 앉아 있는 중년의 동양인 여성과 그 옆에 같은 여성이 등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골 여인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책의 주인공인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면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그 옆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아무도 모르는" 엄마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 모습은 앞을 보고 있지만 뒤돌아 있는 모습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느정도 책 내용과 연결된 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스웨덴 번역본 표지

표지는 대상 문화와 문학 시스템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일례로 원본 독자인 이강선(2019)은 터키어 표지와 비슷하게 '중년의 여인이 등지고 앉아 호수를 응시하고 있고 양쪽에 벚꽃이 드리워져 있'는 스웨덴 번역본의 표지와 소설 내용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는 마치 한국 관광 홍보책자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터키어번역본 대상 독자로서 필자는 위의 표지와 소설의 연

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이 중년의 여성인 것은 맞지만, 위 표지의 중년 여성은 원작의 '엄마'의 모습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번역본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원본과 다르게 번역된 것을 들 수 있으며, 표지도 텍스트처럼 다르게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자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동서양 간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동양/서양 양쪽에 속하면서도 양쪽 중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터키는 서구에서의 동양을 바라보는 모습과는 다르게 인식되지만, 그렇다고 동양이 생각하는 서양의 모습과도 같지 않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문화적인 요소들은 동양에 속하는 부분이 비교적 크지만 과학, 정치, 문학적으로는 서구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터키어번역본의 표지는 한국어 원본 표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인공을 묘사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중개자인 영어번역본이 표지 제작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터키어번역 표지의 제작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번역가와 출판사가 원작의 내용과 제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상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와 같은 표지를 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제목 "엄마를 부탁해" 라는 문장의 한국어 뉘앙스는 매우 친근한 느낌을 준다. 한국어는 사회적 위치, 나이, 친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 선택이 달라진다. 제목이자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 이 구절은 한국어에서 동등하거나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주인공의 큰딸 지현이는 성당에서 성모의 여인상 앞에서 오래동안 서있으면서 찾지 못한 엄마를 생각한다. 그리고 성당을 나가며 성모상 앞에서 이제껏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 '엄마를 부탁해.' 이는 잃어버린 엄마의 안위를 바라는 슬픈 부탁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영어 제목인 “Please look after mom”의 표현은 친근한 뉘앙스보다는 거리가 있는 상대에게 격식을 갖춰 부탁하는 느낌을 준다. 물론 사람마다 신과 맺고 있는 관계가 각자 다르므로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원본에서 “어머니” 대신 조금 더 편안한 호칭인 “엄마”를 쓴 것과 유사하게 영어번역본에서도[47] “mom”이라는 표현을 쓴다. ‘Please’가 주는 거리감을 ‘mother’가 아닌 ‘mom’이 주는 친근함으로 상쇄하고 있다.

터키어번역본의 제목은 영어번역본을 중개로 번역되어 한국어 원본의 제목과는 다른 느낌을 전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터키어 제목이 영문 제목과 동일하기 때문에 원본과 다른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Lütfen Anneme İyi Bak” 이 표현은 터키어에서 사이가 가깝지 않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쓰는 표현이다. 번역가가 영어를 거쳐 번역했기 때문에 ‘please’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상대방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두는 느낌을 주며, 특히 기도할 때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간접번역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 저널』이 소설의 서평에서 지적했듯이 ‘한글 제목에 담겨 있는 ‘믿고 맡긴다’라는 뉘앙스가 영어번역의 제목에서는’ 사라진 것이다.[48] 영어로 ‘look after’ 이라는 단어는 터키어로 ‘bakmak, ilgilenmek’ (돌보다, 케어하다)라고 해석되는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누군가를 부탁하다’ 라는 의미를 충분히

---

[47] 여기서 영어번역이란 처음에 미국에서 출판된 영어본을 말한다. 영국에서 Weidenfeld &Nicolson(2011)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에서 ‘mom’ 대신 ‘mother’으로 번역되어 있다.

[48]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 no. 37, 2011, p. 315

전달하지 못 한다. 터키어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emanet etmek'[49] 이라는 동사나, 이별할 때 흔히 쓰이는 "Allah' a emanet ol!" (직역:신에게 맡기고 간다/이제부터 너를 신에게 부탁한다.) 라는 표현이 있다. 현대식 터키어를 (İstanbul Türkçesi) 쓰는 터키와 다르게 튀르크어족 오구즈어파의 터키어를 쓰는 아제르바이잔어 번역본의 제목인 "Anam sənə əmanət" (엄마를 너한테 부탁한다)가 훨씬 자연스럽고 원본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준 터키어로 "Annem/Anam Sana Emanet"으로 옮겨질 수 있다. 터키어번역본의 적절하지 않은 제목은 간접번역으로 인한 오류의 예 중 하나이다.

터키어번역본의 부제목에서도 영어의 중간 개입으로 부자연스러워진 표현들이 몇 가지 있다. "제2장 미안하다 형철아" 에서 화자인 장남 형철은 길을 잃은 엄마를 찾아다니며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그를 특별히 챙기고, 그가 큰 사람이 되길 바라며 엄마의 삶을 희생했던 엄마의 모습들을 떠올린다. 엄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미안하다'는 말로 표현한다. 영어로는 "I' m sorry, Hyong-chol"로 번역이 되었으며, 터키어로는 "Özür dilerim, Hyong-çol"이라고 옮겨졌다. 그러나 özür dilemek 이 한국어의 '미안하다' 보다는 경어체인 '죄송하다/사과하다'의 가깝다. 한국어처럼 경어가 고도로 발달된 언어를 경어 체계가 없는 언어로 번역할 때는 다양한 번역 옵션이 존재한다.[50] 한국어와 유사한 경어 체계를 갖고 있는 터키어에서도 맥락에

---

[49] "bir şeyi veya bir kimseyi birine veya bir yere korumak için bırakmak" (어떤 물건이나 누군가를 어딘가/누군가에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맡기다) (TDK 터키어 대사전)

[50] Park, Kyung-Eun, et al. "Research on Limitations of Indirect Literary Translation and Aspects of Cultural Vocabulary Translation." Neohelicon (Budapest), vol. 42, no.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달라진다. 한국어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죄송하다'고 하지 않듯이, 터키어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özür dilerim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설에서와 같은 맥락에서는 주로 'affet (용서해), kusura bakma[51] (나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줘)와 같은 사과의 표현을 쓴다. 특히 주인공이 많이 배우지 못한 "농촌 아낙네"[52]라는 점에서도 İstanbul Türkçesi(표준어)인 'özür dilerim' 표현이 이 맥락에서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영어번역을 거쳐 터키어로 옮긴 번역가는 한국어 원작을 참고하지 않고 원본(영어)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

한국어와 터키어 두 언어 모두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하며, 문장 구조나 언어의 문화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53] 더 나아가 최근의 언어학 연구에서는 터키어와 한국어의 감정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었다.[54]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현

2, 2015, pp. 603-604.

[51] Affetmek: Hoşgörü ile karşılamak, mazur görmek (용납하다, 변명하다) / Kusura Bakmamak: Hoşgörmek (용납하다) TDK 터키어 대사전

[52] 이강선,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vol. 20, no. 2, 2019, p. 64.

[53] Turkozu, Goksel. "KÜLTÜREL ÇEVİRİ BAĞLAMINDA KORECE-TÜRKÇE ÇEVİRİ KOREAN-TURKISH TRANSLATION IN THE CONTEXT OF CULTURAL TRANSLATION." Turnalar Dergisi 19 (2018): 3-12. Print.

[54] Jeong, Eun Kyung. " Türkçe Ve Korecede Duygu Aktaran Deyimlerin Karşılaştırılması." RumeliDE Uluslararası Hakemli Dil Ve Edebiyat Araştırmaları Dergisi, vol. 2020, no. 20, 2020, p. 852.

중심 텍스트’ (expressive text type)[55]를 번역할 때 원본의 특색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56] 영어 텍스트를 통한 간접번역은 불필요한 작업이다. 물론 한국어에서 터키어로 직번역이 이루어졌더라도 번역가의 출발어와 도착 문화의 대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비슷한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엄마를 부탁해』 만큼 세계 문학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번역본 수도 적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괵셀튀르쾨쥬 (S. Göksel Türközü)의 직번역으로 터키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튀르쾨쥬는 현재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한국과 터키 사이의 문학 번역 작업에 기여하고 있는 번역가 및 학자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김소월시선』, 『이슬람 정육점』, 『연어』, 『채식주의자』, 『홍길동전』 등의 한국어 문학서를 터키어로 번역했다.[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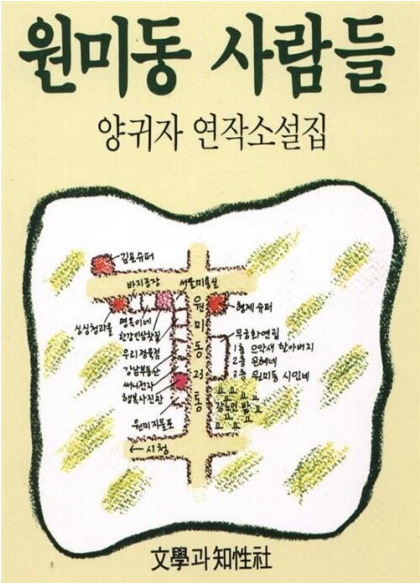
[55] “Reiss(1977)는 도착텍스트가 수행하는 텍스트 기능 혹은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는 시 소설 희곡과 같이 출발텍스트 저자의 표현이 중요한 ‘표현중심 텍스트’ (expressive text type) 의 번역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텍스트가 텍스트 저자의 입장이나 태도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지, 심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술적 형식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호정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vol. 14, no. 2, 2012, p. 260.

[56] 여기서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문화적인 요소와 화재의 목소리 등을 충분히 보전하여 전달하지 못 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영어번역을 비판한다는 오해를 일이킨다는 우려가 있다.

[57] https://www.ltikorea.or.kr/kr/pages/archive/translationBook.do 한국문학번역원 자료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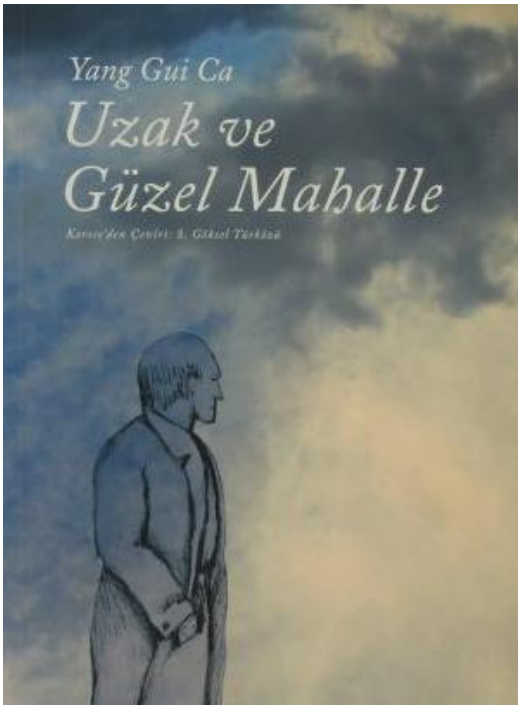
<그림 5> 원본 표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출판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양한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기 때문에 출판사 별로 동네 가게, 동네 지도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여러 버전의 표지가 존재한다. 두 명의 동네 주민을 그린 쓰다 출판사의 표지와 비슷

하게 터키어번역본 *Uzak ve Güzel Mahalle*의 표지는 소설 속 인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터키어 제목이자 첫 장의 부제목인 '멀고 아름다운 동네'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와 연결된다.

<그림 5> 터키어번역본 표지



한국어 원본과 달리 소설의 제목으로 첫 장의 부제목을 사용해 다소 원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번역가는 'Vonmi Mahallesi Sakinleri'로 직역하려고 했으나 도착 언어인 터키어로 '원미' 'Vonmi' (로마자 표기)는 매우 낯선 표현이다. 현지 출판사는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 '타자의 것'에 대해 독자가 거부감 느낄 것을 우려했으며, 이에 작가는 '원미(遠美)'의 한자 뜻을 살

려 'Uzak ve Güzel Mahalle'('멀고 아름다운 동네')로 옮겼다고 전했다.[58] 상업적인 목표로 인해 출판사, 독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충실하게 문학 작품의 미적인 면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번역가의 출발 언어에 대한 능숙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흔적이다.

소설의 부제목 번역을 살펴보면 원본에서 직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자한테 거부감을 주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없다. 중개자가 없어도 번역가의 뛰어난 실력으로 충분히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했다.

두 소설 번역본의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의 파라텍스트적인 요소들을 비교한 결과 간접번역에 있어 이미 낯선 '이국의 것'이 제3의 언어/문화를 통해 옮겨졌다는 이유로 누락되거나 의미가 정확하게 전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 두 개만을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오로지 한국과 터키의 언어와 문화적인 공통적인 점들을 바탕으로 중개자 없이 번역되는 직번역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Please Look After Mom* 영어번역가가 원고와 멀어지더라도 독자에게 가까워지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번역가의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영어번역본을 출발 텍스트로 한 터키어 번역가는 비가시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한편 원고에 충실함을 우선적인 목표로 독자를 원작에 가까이 오게 하는 *Uzak ve Güzel Mahalle* 의 번역가는 비교적으로 앞에 나와 정체성을 내보인다. 번역가의 가시성은 '2차적인 번역'이라고 불리는 간접번역에서는 사라지는 추세이다.

---

[58] 번역가 괵셀튀르쾨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3.2 텍스트 분석

번역 오류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번역 평가와 달리 Malmkjaer(2004)는 번역에서 "번역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번역된 텍스트는 의역이든 직역이든 상관없이 번역 스타일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단 번역된 텍스트에서 구현될 스타일은 시작 텍스트의 텍스트 스타일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59] 텍스트 스타일이란 간단하게 원작의 표현 방식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으로 인한 오타나 오류 하나하나를 찾아서 분석 하는 것보다 김지영이 번역한 *Please Look After Mom* 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저자의 스타일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김지영이 밝혔듯이 처음부터 영어로 쓰여진 것처럼 읽히기 위해서 번역가가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을 변경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례로 단락을 다르게 나누거나 긴 문장을 짧은 문장들로 나누고 또한 독자한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자국화' 과정에서 원저자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잉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번역 *Please Look After Mom*에서 나타나는 변경된 부분들과 오역 몇 가지를 찾아내고 이러한 현상이 터키어 번역에서도

---

[59] 정호정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vol. 14, no. 2, 2012, p. 260.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전에 유사한 관점에서 영어번역본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발견된 오역의 일부 및 필자가 스스로 찾아낸 오역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중개자로 인한 오류 분석을 할 것이다. 중개자로 인한 오류란 소설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잘못 번역 되거나 의도적으로 추가/누락된 것을 뜻하며, 이런 오류들이 터키어 다시 번역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들이 번역을 통해 성격과 목소리를 잃지 않고 충실히 묘사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엄마 '박소녀' 부터 시작하면 이 인물은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주는 정체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소녀'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여자 아이"로 정의 되는데,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의 감수성과 순수함을 가진 주인공의 이름의 의미를 영어 독자들과 터키 독자들은 알 수 없다. 이 인물의 이름이 음역으로 'Park So-nyo'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문 1)[60]

ST: 이름: 박소녀(p.13)

MT: Name : Park So-nyo(p.4)

IT: İsim: Park So-nyo(p.13)

[60] ST는 Source Text(원문), MT는 Mediating Text(영어번역), IT는 Indirect Translation(터키어 번역)을 의미한다. 모든 후속 인용문은 텍스트에 괄호 안의 페이지 번호로 표시된다.

엄마를 찾기 위해 만든 전단지에도 나왔듯이 영어번역은 로마자 표기로만 되어 있어 인물의 이름이 지닌 뜻을 잃게 된다. 또한 간접번역으로 인해 한 가지 문제점이 다시 발생한다. 터키어 번역에는 영본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데, 한국어의 터키어 로마자 표기는 영어와는 다르다.

(예문 2)[61]

ST: **박찬성**은 **조부장**을 분석하고 해독하는 일에...(p.24)

TT: **Bak Çansong**, **Müdür Co'** yu tahlil edip üzerinden dedikodu...(p.23)

(예문 2)에서 볼 수 있듯이 *Uzak ve Güzel Mahalle*에서 번역가가 성 '박'을 김지영의 로마오 표기 'Park' 과 다르게 'Bak' 으로 옮겼다. 터키어와 한국어의 문법적인 공통점으로 인해 터키어 발음에 가장 가깝고 언어학적인 규칙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영문 텍스트에서 번역을 한 번역가는 출발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 줄도 모를 것이다.

(예문 3)

ST: **큰오빠**는 너에게 문구를 더 보충해보라고 했다. 네가 **큰오빠**를 물꾸러미 바라보자 좀더 호소력 있는 문구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p.14)

MT: **Hyong-chol** tells you to write something more on the flyer.

---

[61] 『원미동 사람들』의 경우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T (원문)와 TT (도착어 번역본)으로 표시된다.

When you stare at him, he tells you to think of better sentences, to tug on the reader’s heartstrings? (p.5)

IT: **Hyong-çol** el ilanına başka bir şeyler yazmanı istiyor. Boş boş ona bakınca da el ilanlarını okuyacak kişileri derinden etkileyebilmek için daha iyi cümleler kurman gerektiğini söylüyor.(p.14)

(예문 4)

ST: 그들의 공통점은 기묘하게도 예전에 그가 사랐던 동네 이름을 대는 것이였어. 그것에서 엄마를 본 것 같다고 했다. **개봉동**, **대림동**, **옥수동**, 낙산아파트 밑의 **동숭동**, **수유동**, **신길동**, **정릉**. (p.112)

MT: Strangely, they all said they’d seen her in a neighbourhood he’s lived in. **Kaebong-dong**, **Taerim-dong**, **Oksu-dong**, under the Naksan Apartments in **Tongsung-dong**, **Suyu-dong**, **Singil-dong**, **Chongnung**. (p.99)

IT: İşin tuhafı, hepsi de onu Hyong-çol’un eskiden yaşadığı bir mahallede gördüğünü söylemişti. **Kaebong-dong**’da, **Taerim-dong**’da, **Oksu-dong**’da, **Tongsun-dong**’daki Naksan Konutları’nın karşısında, **Suyu-dong**’da, **Singil-dong**’da ve **Çongnung**’da.

영어번역본에서 ‘Hyong-chol’로 표기된 주인공의 장남의 이름은 터키어번

역본에서 ‘Hyong-çol’로 표기되었다. 이외에도 ‘Chi-hon > Çi-hon’, ‘Chindo > Çindo’, ‘Yokchon-dong > Yokçon-dong’, ‘Chungnung > Çongnung’’ Incheon > İnçon’ 등의 인물이나 지명 등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들을 영어 표기법에서 터키어 표기법으로 전환한 반면 ‘Kaebong-dong, Taerim-dong, Tongsung-dong, Singil-dong’ 같은 경우에는 영문 표시법 그대로 번역했다. 번역가가 영문 번역가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터키어로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변환하는 ‘ch’ > ‘ç’ 외에는 영문 그대로를 쓴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은 번역가가 위 고유 명사들의 한글 발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단어들을 터키어로 옳게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Gebong-dong, Derim-dong, Dongsong-dong, Şingil-dong’. 이러한 번역가의 선택이 독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독성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문 5)

ST: - 손님! **용산2가동** 동사무소하고 했지요?

숙대입구역에서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며 택시 기사가 묻는 말을 그는놓쳤다.(p.87)

MT: ‘Sir, you said the **Yongsan 2-dong** office, right?’ the taxi driver asks him, turning **in front of the university** towards **Yongsan** High School, but Hyong-chol doesn’t seem to have heard.(p.75)

IT: Taksi şoförü **üniversitenin önünden Yongsan** Lisesi’ne doğru dönerken ‘’ **Yongsan 2-dong** iş merkezi demiştiniz, değil mi?’’

diye soruyor, ama Hyong-çol onu duymuyor. (p.72)

(예문 6)

ST: 마침내 도계를 지나 트럭은 **경기도** 땅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서울**은 끝이 났다.(p.30)

TT: Kamyon nihayet il sınırından geçerek **Giongi bölgesinde** ilerlemeye başladı. **Seul** bitti.(p.29)

(예문 7)

ST: **원미동** 어디에서나 쳐다볼 수 있는 길다란 능선들 모두가 원미산이였다.(p.313)

TT: **Vonmi Mahallesi**' nin neresinden olursa olsun her yerinden görülen bayırların hepsi **Vonmi Dağı**' ydı.(p.297)

또한 *Lütfen Anneme İyi Bak*에서 지역 이름 같은 경우, 로마자 표기만 나와 터키어 독자들의 이해를 방해하고 가독성도 다소 떨어진다. 번역가는 'Yongsan 2-dong', 'Namyong-dong' 처럼 영어번역본에 있는 그대로 표시한다. 반면에 *Uzak ve Güzel Mahalle*의 번역가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착어 발음에 맞게 번역을 하며, 또 '경기도', '쌍문동', '원미동', '원미산' 같은 지역 이름에 붙은 '도, 시, 구, 동, 산' 등을 터키어로 일반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Giongi bölgesi', 'Ssangmun Semti', 'Vonmi Mahallesi', 'Vonmi Dağı'

처럼 ‘bölge, şehir, ilçe, mahalle, semt, dağ’ (등가어) 등으로 옮긴다.

(예문 5)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으로 인해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원서에서의 ‘숙대입구역’이 영문 번역에서는 고유명사를 없앤 ‘in~~’가 된다.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지하철역 이름인 ‘OO대입구역’이 한국 독자들이 소설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반면, 영어나 터키어 독자들은 문자 그대로 위치와 상관없이 아무 ‘대학교 앞’을 지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소설 곳곳에서, 특히 잃어버린 엄마를 찾으면서 다니는 곳들은 한국 독자에게는 소설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영어 및 터키어번역본에서 단순히 지명으로 음역처리되거나 (예문 5)에서처럼 없어지면서 해당 독자에게는 문맥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문 8)

ST: 용모: 흰머리가 많이 섞인 짧은 퍼머머리... (p.13)

MT: Appearance: Short, salt-and-pepper permed hair... (p.4)

IT: Görünüşü: Kısa boylu, kırçıl kıvırcık saçlı.... (p.13)

중개자의 번역 오류로 인해 발생한 도착어(터키어) 번역에 나타난 오류로는 표기법 외에도 구두법으로 인한 오류도 있다. 일례로 위 예문을 보면 원서에 ‘짧은’ 형용사가 머리를 서술하기 위한 단어이지만 영어번역본에 ‘short’ 다음에 쉼표를 넣으면서 ‘short’라는 형용사가 머리가 짧다는 뜻이 아닌 인물의 키가 작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터키어번역본에는 ‘kısa boylu’ (작은 키의)로 옮겨져 인

물에 대한 첫 인상이 달라진다.

(예문 9)

ST: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며칠 전에 새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고기를 끊어 오고, 치약과 칫솔들을 준비했다.(p.12)

MT: A few days before everyone came down, she would make fresh **kimchi**, go to the market to buy beef, and stock up on extra toothpaste and toothbrushes.(p.3)

IT: Herkes gelmeden birkaç gün önceden taze ***kimchi*** yapar, et almak için markete gider, fazladan diş macunu ve diş fırçası alırdı. (p.12)

(예문 10)

ST: 그때의 엄마는 물빛 **한복**을 입고 미장원에 가 업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고 입술에 붉음빛이 도는 루주를 바른, 한껏 멋을 낸 모습이였다. (p.13)

MT: Mother looked nice in a pale-blue ***hanbok***, with her hair done at a salon, and she was even wearing red lipstick.(p.4)

IT: Annen o gün kendisine çok yakışan açık mavi renkli bir ***hanbok*** giymiş kuaförde saçını yaptırmış, kırmızı ruj dahi sürmüş. (p.12)

(예문 11)

ST: 여름 마다 똥 냄새 풍겨 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백만 **원** 이상 으로 팔아 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 입니까.(p.64)

TT: Her yaz dışkı kokusu yayan böyle bir tarlayı **pyong** başına milyon **wonun** üzerinde paraya satmak o kadar kolay bir iş mi?(p.61)

김지영은 *Please Look After Mom*의 '김치, 한복, 리, 평, 막걸리' 등의 문화적인 어휘들의 번역 과정에서 다양한 번역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문화적인 어휘들을 차용하여 영미권 독자에게 새로운 요소들을 소개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 단어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한다. 반면에 터키어 번역가는 차용을 하되 바닥글로 문화적 어휘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2차 번역가가 새롭게 접한 단어를 대상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어느 정도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번역가는 가시적인 존재에 더 가까워진다. 반면에 *Uzak ve Güzel Mahalle*에서는 (예문 11)와 같이 번역가가 음차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부분들도 있어 비가시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문 12)

ST: **김장철**이면 늘 휘몰아오는 본격 한파가 시작된 것은 이삼 일 전부터였다. (p.8)

TT: Çeşitli baharatlarla çeşnilendirilmiş acılı Kore turşusu **gimçi**

kurma mevsimi geldiğinde her zaman olduğu gibi çıkan soğuk hava dalgasının başlaması iki üç gün önceydi.(p.8)

(예문 13)

ST: 촉대 , 향로 , 정병 (淨甁) , 소탑 (小塔) 등 을 조잡한 기술로 모조 해놓고 인간 문화재의 이름을 팔아 비싼 값을 매겨 놓은 것이었다. (p.46)

TT: Çokde (bir çift şamdan, 9. yy. Birleşik Şilla dönemi), Hyangno (buhurdanlık), Congbyong (Goryo döneminde Buda' ya temiz su ikram edilen uzun boyunlu testi), Sotab (minyatür pagoda) vs. Kaba tekniklerle taklit edilen suni kültürel eserlere sırf isimlerinden dolayı yüksek fiyatlar biçmişlerdi. (p.43)

(예문 12)에서 *Uzak ve Güzel Mahalle*의 번역가는 '김장철' 이라는 표현을 차용하지 않고 'Çeşitli baharatlarla çeşnilendirilmiş acılı Kore turşusu gimçi kurma mevsimi' '다양한 향신료로 양념을 한 한국의 매운 피클인 감치를 담그는 철'(의역)이라고 풀어 설명을 하면서 독자들이 대상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예문 13)에서 '촉대, 향로, 정병' 등의 단어들을 음차어로 번역하여 이어 설명을 덧붙이며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터키어 번역가가 *Please Look After Mom*의 번역가와 다르게 '이국화'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Lütfen Anneme İyi Bak*에서 번역가가 영어 어휘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

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Braille(점자)', 'Perilla(들깨)', 'Machu Picchu' 등의 영문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분석된 오류들과 다르게 중개자로 인해 발생한 단어적 차원의 오역의 예시를 <표 1>에서 볼 수 있다.

<표 1>[62]

	한국어	영어	터키어	구분(한국어 뜻)	터키어번역 대안
1	여름 제사	ancestral rites	geleneksel bayram	오역(전통적인 명절)	Ölmüş atalar için yapılan yaz ayini
2	산딸기	wild strawberry	yabani çilek	오역(야생딸기)	Dağ Çileği
3	호박	courgettes	dolmalık biber	오역(피망)	Kabak
4	설	New Year's	Yılbaşı	오역(새해)	Ay Takvimi Yeni Yılı
5	고모	Father's sister	Babanın kızkardeşi	오역(아빠의 여자 형재)	Hala
6	한의원	Chinese doctor	Çinli doktor	오역(중국인 의사)	Kore Geleneksel Doktoru
7	저승사자	death	Ölüm	오역(죽음)	Azrail

[62] 이 표에 나타난 단어들은 제1장에서만 나타난 어휘 오역의 목록의 일부이며 본고에서 연구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략하게 표시 되었다.

8	작은어머니	aunts	teyzelerin	오역(이모)	Yenge
9	바가지	bowl	kâse	오역(그릇)	Leğen
10	새참	snack	karnı acıkınca yemek için birşeyler	오역(배 고플때 먹을 것)	Kuşluk yemeği/ Çalışırken yenen ara öğün
11	고구마	yam	yer elması	오역(뚱딴지)	Tatlı patates
12	시장	market	market	오역(마트)	Pazar
13	뒷마루	back porch	veranda	오역(베란다)	Arka Bahçe
14	고추장	Red-pepper paste	Kırmızı biber ezmesi	오역(으깬 홍고추)	Biber Salçası
15	수건	towel	başörtüsü	오역(헤드스카프)	Havlu

<표 1>에서 표시된 오역들은 오로지 중개 텍스트 때문에 발생한 오류는 아니다. 예를 들면 <표 1>에 있는 '여름 제사'와 '수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번역가의 실수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번역가가 '제사'를 올바르게 번역한 부분도 있다. '수건'의 경우 등장 인물이 수건으로 머리를 덮었다는 내용 때문에 헤드스카프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설'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도 사용되는 음력을 바탕으로 하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자의 개입으로 양력 새해를 뜻하는 'Yılbaşı'로 번역되었다. '새참' 같은 경우에는 영어번역가가 단순히 'snack'으로 번역하여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인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을 일컫

는 ‘새참’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단순화되고 문화적인 의미가 누락되었다.

위 표의 8번처럼 호칭 사용으로 인해 오역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와 비슷하게 터키어에서도 나이, 성 및 결혼으로 인해 생긴 가족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다양하고 다르며 이런 호칭 구분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중개번역을 통해서는 원서에서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터키어에서도 한국어와 동일하게 친가/외가로 구분하여 호칭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삼촌’과 ‘외삼촌’은 ‘uncle’로만 사용되지만, 터키어는 아버지의 남성 형제 ‘amca’ 및 어머니의 남성 형제 ‘dayı’로 구분된다. 원서에서는 화자와 인물들과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다른데 이것 또한 영어 텍스트의 중개로 인해 잘못 번역되었다. 일례로 첫 장에서 화자의 큰 오빠가 ‘Hyong-çol’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터키어 번역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된다. 하지만 터키에서 나이가 많은 형제를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특히 장남은 아버지 다음으로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칭이 중요한 한국어와 터키어 사이의 중개자로 정반대 성향을 보이는 영어가 개입하여 원작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예문 14)

ST: “-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면 배반을 허고 개는 거두면 보답을 헌다고 안허디. 아무리도 그 개가 내 대신 갔는가봐아.” (pp.61-62)

MT: “- They say if you take in a person he will betray you, and if you take in a dog he will pay you back. I think the dog went

in my place.” (p.53)

IT: “– Derler ki, bir insanı yanına alıp bakarsan sana ihanet edermiş. Bir köpeği yanına alıp beslersen sana bu iyiliğinin karşılığını mutlaka ödermiş. Galiba köpek benim yerime öldü.” (p.52)

번역 오류 이외의 이유로도 터키어 번역에서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사투리는 지역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동시에 어머니의 사회적인 위치 및 성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투리를 누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63] 시골에 살며 글 조차 배우지 못한 주인공이 영어번역본에서는 표준어를 쓰는 것으로 묘사되어 인물의 성격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김지영 스스로 “사투리와 존댓말은 영어로의 번역에서 ‘당연히 잃어버리는 요소’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예문 14)에서 영어번역본이나 터키어번역본의 등장 인물들 말투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인물들의 말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여기서 원작을 모르고 있는 터키어 번역가가 중개자의 번역 스타일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예문 15)

ST: “와 이래 아를 울리노. 은혜 이리 온나. 이 좋은 날 울믄 안된다. 억시기 추븐 날이제. 그라케도 내사 기분만 좋다. 집 사서 이사하니 내사 좋다. 얼매나 떠돌아댕겼노....” (p.13)

---

[63] 박철우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自國化, Domesticating)’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vol. 13, no. 2, 2014, p. 190.

TT: “Niye çocuğu böyle ağlatıyorsun? Inhe, buraya gel. Böyle güzel bir günde ağlarsan olmaz. Oldukça soğuk bir gün değil mi? Oh oh, Yine de moralim iyi. Kendi evimize taşınıyoruz ya. Ne kadar dolanıp durduk...” (p.13)

한편 터키어로 직번역된 *Uzak ve Güzel Mahalle*에서도 사투리가 사용되지 않는다. (예문 15)을 보면 소설의 첫 장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로 등장한 인물은 꽤나 존재감이 강한 사투리로 말을 하지만 터키어 번역 텍스트에서는 사투리의 흔적이 없다. 이것에 대해 번역가가 사투리를 현지 사투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Uzak ve Güzel Mahalle* 번역 과정에서 사투리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사투리와 억양 같은 지역과 언어의 특징들은 번역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표준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덧붙었다.[64]

사투리와 같은 한 언어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번역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과 동일하게 터키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고유의 사투리와 억양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지역의 사투리를 다른 언어에서 어떤 지역의 사투리로 번역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필자는 김지영이 사투리를 번역하지 않더라도 말투를 비슷하게 번역함으로써 등장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외에도 번역가가 구조적으로 변경한 부분들 역시 적지 않다. 박철우(2014)가 언급했듯이 번역가가 ‘처음부터 영어로 쓰여진 글’처럼 읽히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문장 구조를 선호하는’ 영미권 독자를 위해

[64] 번역가 괵셀튀르쾨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긴 문장을 짧은 두 문장으로 나누거나 한 단락을 두개로 나눴다. 더 나아가 김지영은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누락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번역 텍스트에 추가하기도 했다. 영어번역에서 이루어진 이런 구조적 '변형-첨가-누락'은 터키어번역 텍스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문 16)

ST: ... 네가 태어난 곳이지만 엄마의 집이 있는 마을은 이제 네게 낯선 곳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흔적이래야 도랑의 팽나무 몇가루 남아 있는 게 전부이다. 세 그루의 팽나무는 고목이 되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너는 엄마 집에 갈적이면 큰 도로가 있는 길을 두고 팽나무가 있는 도랑쪽으로 길을 잡곤 했다...(p.28)

MT: ...Even though you were born there, the village had become an unfamiliar place. **The only things left from your childhood were the three nettle trees, now mature, near the stream.** When you went to your parents' house, you took the small path towards the nettle-lined stream instead of the big road...(p.19)

IT: Orada doğduğun halde köyün yabancı bir yere dönüştüğünü farkettin. **Çocukluğundan kalan tek şey, dere kenarındaki iyice boy atmış ısırgan otlarıydı.** Eve geniş yoldan değil de etrafı ısırgan otlarıyla çevrili derenin geçtiği patikadan yürümüştür...(p.25)

(예문 17)

ST: ...금방이라도 놓쳐버릴 것 같은 손아귀의 아슬 아슬함이 그를 긴장되게 했다.

생채기 없이 나머지가 완전히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얼마큼 더 힘을 쏟아부어야만 하나...(p.8)

TT: ...O an elinden kaçıracakmış gibi avucunun içinde hissettiği gerginlik onu tedirgin etmişti. **Geri kalanı kusursuz bir şekilde, çizmeden kapından geçirmek bir parça daha güç sarf etmeyi gerektiriyordu...**(p.8)

위의 (예문 16)에서 원문 텍스트에서 볼드체 처리된 문장은 영어번역 텍스트에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 옮겨졌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누락된 부분도 있지만 다음 문장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였을 것이다.'가 완전히 누락된다. 원서에서 화자가 큰 도로가 아닌 '팽나무가 있는 도랑 쪽'을 선택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지영은 이 뜻을 전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터키어 번역가도 이 의미를 전달받지 못해 영역본과 마찬가지로 터키어번역본에도 원인과 결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 예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사례가 많으며 영역 번역가의 선택으로 인해 터키어 번역에 의미 전달이 부족한 점이 확인된다. 간접번역으로 인해 원인과 결과 관계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터키어번역본 독자는 원서 독자와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안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문17)에서는 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텍스트가 한 단락으로 합쳐졌다. 이는 의미의 전달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원작을 충실히 옮기려

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위 예문에서 '얼마큼 더 힘을 쏟아부어야만 하나.'라는 표현이 불평과 지루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번역된 텍스트에서는 그러한 뉘앙스를 찾을 수 없다.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옮긴 탓에 원작가가 전하는 의미가 상실되었다.

번역가가 원문을 어느 정도까지 변경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Please Look After Mom*에서 번역가가 적정한 수준에서 원문을 변경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본고의 관점에서는 번역가의 선택이 2차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영어번역이 영미권 독자를 염두에 두고 구조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간접번역의 대상인 독자는 영미권 독자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터키어 번역가의 경우 한국 문화, 문학,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영문 텍스트를 소스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어 원본과 터키어번역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이미 한 번의 번역으로 놓친 요소들이 2차 번역에서 한 번 더 누락되었기 때문에 간접번역이 모든 경우에 이상적인 번역 전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학 및 언어적으로 풍요롭고 표현이 발달된 한국어와 터키어 같은 경우에 중개 언어를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번역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IV. 결론

문학 번역은 한 문화권의 정체성을 타국에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완수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합의된 완벽한 번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가 개인의 선택, 상업적인 목표, 독자와 출판사의 유형과 요청에 따라 매우 개별화된 다양한 유형의 문학 번역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 마저 적절한 번역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별로 다른 목표, 상황, 배경 아래 번역 작업을 진행하는 자들이 동일한 형식의 번역물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없는 문학 번역에서 번역가들은 나름의 정확함을 추구하며 번역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족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국화 전략에 따라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자국화로 인해 2차적인 번역 작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화'가 '서구화'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접 문학 번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연구 가치가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간접 문학 번역이 실시되는 이유는 상황과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이중 언어 번역가의 부족이 오늘날 간접번역이 실시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문학 번역은 특별히 주변언어들 사이에서 상당한 수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번역, 즉 번역의 번역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간접번역이 모든 언어와 문학 사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신할 수 없다.

특히 문화, 문학, 언어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언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간접 문학 번역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개자의 개입으로 원본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터키어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학 번역에 직접성/간접성을 분석하여 간접 문학 번역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의 터키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면서 두 언어 사이에서 간접/직접번역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효율적인지 살피고 두 가지 전략의 장단점을 논한다. 본고에서는 영어번역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2차(간접) 번역인 터키어로 전이된 과정을 분석하여 터키어 번역가의 가시성 문제로까지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시도를 통해 한국과 터키의 문학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터키어로 직간접번역된 두 소설을 비교 분석하여 두 언어 간의 번역과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어와 터키어 사이의 문학 번역에서 중개 언어/텍스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누락 및 의미 변화가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발생하되 번역가의 가시성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물론 번역의 성공/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가지이며 궁극적으로 번역가의 번역 능력 및 원본과 원본 문화권에 대한 이해에 따라 번역물의 수용성이 크게 달라지지만, 위의 두 개의 소설의 터키어 번역을 분석한 결과 터키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간접번역 보다 직접번역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번역의 직/간접성이 번역가의 가시성에 영향을 주지만 간접번역에서 번역가가 비가시적인 존재가 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위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간접번역

의 경우 번역가가 1차 번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번역 오류, 가독성 하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2차 번역가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도 있다. 그리하여 번역가의 가시성 문제와 관련해서 직/간접번역이 각자 장단점이 있다 해도 최종적으로 번역가의 능력, 유창함, 번역경력, 번역스타일 등의 요소들로 인해 번역의 직/간접성과 무관하게 가시성을 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V. 참고문헌

1차 문헌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Print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살림출판사, 2004. Print

Kyung-Sook Shin. *Please Look After Mom,* Translated by Chi-Young Kim, London, Weidenfeld & Nicolson, 2011. Print

Kyung-Sook Shin. *Lütfen Anneme İyi Bak*, Translated by Belgin Selen Haktanır Us, İstanbul, Dogan Kitap, 2011. Print

Yang Gui Ca. *Uzak ve Güzel Mahalle*, Translated by S. Göksel Türközü, İstanbul, Delta Yayınları, 2009. Print

2차 문헌

Araboglu, Asli. "Our way of (not) seeing the adventure of the translator during translation criticism". Idil Journal of Art and Language 8.57 (2019): n. pag. Web.

Hatim, B.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 Basil Hatim. Second ed., 2014

Jeong, Eun Kyung. "Türkçe Ve Korecede Duygu Aktaran Deyimlerin Karşılaştırılması." RumeliDE Uluslararası Hakemli Dil Ve Edebiyat Araştırmaları Dergisi, vol. 2020, no. 20, 2020, pp. 849–859.

Kiaer, Jieun, et al. Translation and Literature in East Asia : Between Visibility and Invisibility, Taylor & Francis Group, 2019. ProQuest Ebook Central, https://ebookcentral.proquest.com/lib/snulibrary-ebooks/detail.action?docID=5770446

Lee, Hyung-Jin. "Survival through Indirect Translation: Pablo Neruda's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into Korean." Journal of Language Translation, vol. 9, no. 2, 2008, pp. 71–93.

Marin-Lacarta, Maialen. "Indirectness in Literary Translation: Methodological Possibilities." Translation Studies, vol. 10, no. 2, 2017, pp. 133–149.

Park, Kyung-Eun, et al. "Research on Limitations of Indirect Literary Translation and Aspects of Cultural Vocabulary Translation." Neohelicon (Budapest), vol. 42, no. 2, 2015, pp. 603–604.

Park, Kyung-Eun, et al. "Research on Limitations of Indirect Literary Translation and Aspects of Cultural Vocabulary Translation." Neohelicon (Budapest), vol. 42, no. 2, 2015, pp. 603–621.

Radó, György. 1975. "Indirect Translation." Babel 21 (2): 51–59.

Roig, Diana Sanz, and Bozena Zaboklicka. "What Do (We Think) We Know about Indirectness in Literary Translation? A Tentative Review of the State-of-the-Art and Possible Research Avenues." Traducci□ Indirecta En La Literatura Catalana: V Simposi Sobre traducci□ I recepci□ En La Literatura Catalana contempor□nia, Punctum, Lleida, 2014, pp. 15–34.

Rosa, Alexandra Assis, et al.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Regarding Indirect Translation: An Overview.” Translation Studies, vol. 10, no. 2, 2017, pp. 113–132.

SeungJae Lee. “불경간접번역과 교육적 함의: ‘금강경’번역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vol. 17, no. 3, 2019, pp. 93–113.

Tanrıkulu, Lokman. “The Investigation of Sabahattin Ali’s ‘The Devil Within Us’ Novel According to Polysystem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al Sciences Education (2018): n. pag. Print

Toury, Gideon.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Electronic Resource] / Gideon Toury. J. Benjamins Pub., 1995.

Turkozu, Goksel. “KÜLTÜREL ÇEVİRİ BAĞLAMINDA KORECE–TÜRKÇE ÇEVİRİ KOREAN–TURKISH TRANSLATION IN THE CONTEXT OF CULTURAL TRANSLATION.” Turnalar Dergisi 19 (2018): 3–12. Print.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Print.

Venuti, L. (2013).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 Theory and Practice / Lawrence Venuti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 Edited by Lawrence Venuti., 2000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 Edited by Lawrence Venuti.,

2004

곽순례,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문화 어휘에 관한 고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2017, pp. 1–27.

김영신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가의 비가시성 연구 – '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vol. 14, no. 2, 2012, pp. 63–78.

김정림, "목표 문화 중심의 번역 전략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3. 부산

박철우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自國化, Domesticating)’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vol. 13, no. 2, 2014, pp. 181–197.

윤선경 “문학번역 연구 현황과 과제: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vol. 57, no. 3, 2013, pp. 125–145.

이강선,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vol. 20, no. 2, 2019, pp. 57–79

이광호 “표현 양식 차이로 인한 한/영 번역의 문제.” 통번역교육연구, vol. 9, no. 1, 2011, pp. 145–162.

이난아, “터키 문단과 언론에 나타난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제안.”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26, 2009, p. 135.

이난아,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와 번역 현황 고찰.” 아시아리뷰, vol. 3, no. 2, 2013, pp. 161–185.

이형진,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37, 2011, p. 303-328.

정호정,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vol. 14, no. 2, 2012, pp. 255–281.

조숙희 “베누티의 이국화로 본 김지영의 번역 텍스트 Please Look After Mom : 문화특정어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vol. 8, no. 3, 2015, pp. 253–271.

VI. Abstract

Proposal on Translator's Visibility in Indirect Translation and Cultural Translation

– Analysis of Turkish translation of Shin Kyung–sook's 『Take Care of Mom』 and Yang Gwija's 『 A Distant and Beautiful Place 』

Akca, Sele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urkish translation of Shin Kyung–sook's novel *Please Take Care of Mom* and Yang Gwija's novel *A Distant and Beautiful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 and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of indirect literary translation among the surrounding languages with commonalities, (un)necessity, and the effect of indirect translation on the translator's visibility. To do this, the manuscript of the two novels, the English translation, and the

Turkish translation a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as a result how indirect translation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nguages is discussed.

Literary translation does not simply aim to communicate, but aims to make the culture and language of one culture accessible to the readers of another culture and have a similar experience to that of the original readers. Through literary trans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a country/culture's history, life, language, and practices etc. can be shown to people from other cultures who are unfamiliar with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iterary circles can be strengthened. For this reason, the reader's perception and acceptance may vary depending on how the characteristics of a culture are translated,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n acceptable translation.

Indirect translation, which has been intentionally hidden for a long time or has not been sufficiently acknowledged, has only recently begun to be academically discussed. With globalization, translations utilizing a central language between peripheral languages are increasing. The concept of indirection reflects power relationships in complex ways that draw attention to actors, visualize hierarchies throughout literature, and highlight the complexity of the literary translation process. Lawrence Venuti argues that translators aim

their work to be natural and readable which makes them invisible and leads them lose their identity and the translation itself becomes invisible. Here, the translator can either reveal visibility or remain invisible by choosing whether to be close to the writer or the target reader.

Kim Ji-young's Please Look After Mom achieved great results in the outflow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broad. Beyond the invisibility of translators, which was prevalent i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the translation was criticized as natural enough to be accepted as 'written in English in the first place' by choosing the method of ‘Domestication’. However, there were also voices that this English translation did not convey the cultural elements of Korea well due to excessive domestication.

In this paper, we try to discuss and expand the problem of visibility of Turkish translator by analyzing how these elements, which were not delivered through English translation, were transferred to Turkish, which is a secondary(indirect) translation. This paper dares to give advice on the path to be followed by literary transla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through such an attempt.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ze two novels translat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Korean to Turkish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based on the

translation and research conducted between the two languag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use of intermediary language/text in literary translation between Korean and Turkish caused omission and semantic changes to interfere with the reader's understanding, but did not affect the translator's visibility problem. Of cours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failure of translation, and ultimately, the acceptance of the transl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translator's ability to translate the original and the original culture, but the analysis of the Turkish translation of the two novels show that it is likely to lead to better direct translation than indirect translation.

Although the direct/indirectness of translation affects the visibility of the translato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translator becomes invisible in indirect translation. Looking at the above data, in the case of indirect translation, translation errors and reduced readability occur because the translation is based on the primary translation, but there are times when the secondary translator comes forward and show herself to help the reader understand. Therefore, even if direct/indirect translation has its pros and cons regarding the issue of visibility of translators, it can be said that visibility is finally revealed regardless of the

direct/indirectness of translation due to the translator's ability, fluency, translation experience, and translation style.

Keywords: Translation studies, translators invisibility, direct translation, indirect translation, Culture Translation, Shin Kyung-sook, Yang Gwija, Turkish Translation

Student Number: 2015-23284